

충남발전연구원 2006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의 개최

-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원 활성화 방안 논의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지난 4월 20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9명과 연구원 10명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자문위원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이번이 5번째를 맞이하여 신규 자문위원 상견례, 연구원 현황청취, 운영자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차미숙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지역단위의 정책분석이나 평가 등 현장중심 연구”를, 지진호 교수(건양대)는 “지역대학과 충남발전연구원간 정보교류와 연구협력”을, 이선하 교수(공주대)는 “교통분야 연구확대”를, 윤홍렬 교수(남서울대)는 “지역별 브랜드 개발”을 연구원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자문하였다. 또한 오필환 교수(천안대)는 “청소년관련 연구”를, 오덕성 교수(충남대)는 “적극적인 브레인풀제 활용”을, 성정경 위원(前대사)은 “세계화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공동연구”를, 박경 교수(목원대)는 “서비스업 역량축적 방안”을, 김태명 교수(한남대)는 “연구수요 확대 및 연구분담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를 주관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연구원이 도정정보의 결집체로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커다란 물줄기 속에서 충남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대변하는 공익연구기관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위원들이 개진한 자문내용을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시·군 워크숍 개최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은 4월 11일에서 4월 19일까지 7일에 걸쳐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의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충청남도는 그 하위계획인 도3차 종합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본 수정계획은 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의 성격,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성격,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는 지역·부문적 성격, 시·군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이 되고 민간부문에 대해 개발방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순회 워크숍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와 각 시·군의 발전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본 수정계획에 담고자 하는 시·군의 현안 및 사업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수정계획은 계획시안이 작성되면 지역별 공청회를 통하여 재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0월 말에 최종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3차 충남환경포럼: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방안」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에서 주관하는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방안」에 관한 제3차 충남환경포럼이 지난 4월 21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도 관세관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백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통해 국내 멸종위기동물 소개, 생물종 및 서식지 복원유형,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2003년) 실시에 따른 생물종 서식 및 분포실태, 충청남도내 주요 생물서식지 및 생물종 분포실태, 시·군·구별 생물종 복원정책, 생물서식지 복원 로드맵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대해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신동현 충청남도 사무관,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5명의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충청남도내 각 시군이 선정한 깃대종은 시군의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지역적 특징에 부합하는 종으로 제조정하여야 하고, 충청남도에 존재하는 생물서식지에 대한 정보는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향후 충청남도 여건에 적합한 생물서식지 복원보형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충남환경포럼은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자연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도 내외 관련 전문가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5년 5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생태네트워크 구축,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생태자원 관리 등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